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59>

JCCT 2022-9-7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분석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윤옥한*

Yoon Ok Ha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surveys, and interview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the promotion has been revised to cultivate the competencies necessary for the future society and to strengthen the learner-tailored education. Second, what characterize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that it is being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people as a future-oriented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being directed towards individuality and diversity,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digitally based education, and public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ourth, the principal contents are curriculum innovation in response to future changes, cultivating community values and capacity building for learners, strengthening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develop digital and AI literacy, and strengthening the curriculum for all.

Key words : 2022 Revision Curriculum, 2022 Curriculum Promotion Background, 2022 Curriculum Revision Contents, Curriculum

I. 서론

코로나19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틀에 변화를 요청

하고 있다[1].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틀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사회적 변화에 더 민감하다[2].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정회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6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31일

Received: July 6, 2022 / Revised: August 10, 2022

Accepted: August 31, 2022

*Corresponding Author: okaiyoon@kookmin.ac.kr

Dept.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Korea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이 1차: 1954년 4월 - 1963년 1월, 2차 개정: 1963년 2월 - 1973년 1월, 3차 개정: 1973년 2월 - 1981년 12월, 4차 개정: 1982년 1월 - 1987년 6월, 5차 개정: 1987년 7월 - 1992년 9월, 6차 개정: 1992년 10월 - 1996년 12월, 7차 개정: 1997년 1월 - 2009년 2월에 이루어 졌다[3][4].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면적 또는 일률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2021년 4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였다[5]. 2021년 11월 24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였다[6].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의 실체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7]. 교육과정 개정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개정이란 의미는 검토, 수정, 변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최신의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수정한다[8]. 이러한 국가 교육 과정 개정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8][9][10][11][12][13]. 김세영(2021)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8], 배지현(2016)은 국가 수준의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였다[9]. 온정덕(2013)은 2009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10]. 유성열·정광순(2021)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11], 홍원표(2016)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방안과 후속 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12]. 홍영기(2020)는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황규호(2013)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교육의 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13].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4][15][16][17]. 광영순·신영준(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과학과 통합과학 및 과학 탐구실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였고[14], 박지현·김지현(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방향에 따라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을 탐색하였으며[15], 성열관(2021)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 과정학의 역할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였으며[16], 전용주 외(2021)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정보과 과목 구성 및 내용체계를 연구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7].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의미 탐색에 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문헌 연구 대상은 선행연구, 공청회 자료, 언론 보도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방안 등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주요 사항과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연구자가 분석 후 현장 교사들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05일까지 중등학교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시 연구자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를 분석한 내용을 설문지 뒷면에 추가하였다. 연구자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를 분석한 것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가 분석한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설문지 회수율은 19명(79%)이다. 응답자 대상 19명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분석
 Table 1. Analysis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N=19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급별	중학교	8	42
	고등학교	11	58
학교 형태	공립	9	47
	사립	10	53

설문조사 내용은 ①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②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인식 ③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④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준비 방향 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타 의견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은 연구자가 1차로 문항을 작성한 후 교육학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2명이 조사항목에 대하여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다음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을 교육학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3명에게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18]. 검사 문항이 내용을 잘 대표한다면 내용 타당도가 높다. 내용 타당도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0.78 이상이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19]. 설문지 문항 구성의 타당성 지수는 1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 중 양적으로 측정할 내용은 평균을 분석하였고 질적인 측면인 주관식 문항은 설문 내용 항목별로 의미를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도,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재현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20].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의 경우 Krippendorff의 α 의 경우 코더 수와 명목, 서열 변수 등 측정 수준에 제한이 없고 관찰된 불일치도와 예상된 불일치도 간 값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Hayes & Krippendorff(2007)에 의하면 .66 이상이면 잠정적 합의로 받아들일 수 있고, .80 이상이면 어디서나 수용한다[21][22]. Cohen의 κ 는 2명의 코더 간 비교와 명목척도만 가능하고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도 지수는 특별히 산출하지 않았다. 설문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2021년 1월 07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모호한 내용과 추가로 알아볼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최종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III.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분석

1.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여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추진 배경은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혁신의 필요성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상이변과 기후환경 변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현이 필요하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의 필요성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여 학생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줄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체제 및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디지털 친화적 도전적 특성을 갖는 학습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성향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며,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 온 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교수 학습의 확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증대하고 있다. 미래 교육에 적합하고 학교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 주체와 국민의 참여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 학교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다. 기존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교육과정이 마련될 때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대국민 설문조사, 학교 현장(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2]

3.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성과 다양성이다.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 개별 성장이나 진로 연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삶과 연계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분권화와 자율화이다. 지역의 분권화와 학교·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이다.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범위 확대 등 수업 운영 다양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듀테크 활용 및 지역 연계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등이 분권화 자율화를 위해 마련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기반 교육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 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 지향적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재설계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넷째,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함양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생태 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소양으로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역량함양을 강조한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목표 등으로 개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목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각 인간상과 역량의 의미는 총론 시안 개발 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하였다. 인간상은 교육 이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인간상의 의미와 진술 방식 등을 각 인간상의 의미 진술 시 주요 키워드를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인간상은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으로 확정하였다. 기초소양으로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총론과 교과에 반영한다. 언어 소양의 경우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이다. 수리 소양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다. 디지털 소양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이다.

둘째,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①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전환교육 강화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소양으로 생태 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교육 강화이다. 생태 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 총론에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전환’ 등에 포함된 가치로(생명 존중, 지속 가능, 생태 환경 감수성 등) 교육목표에 반영한 것이다. 생태 전환교육의 중심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였다. 교육적 인간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핵심 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수정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육성한다.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육성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육성한다. 생태 전환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은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주요 영역으로 생태와 인간의 관계,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 탐구, 생태 전환을 위한 실천과 참여 등이다. 내용 요소는 생태 감수성과 책임감, 인간 이외의 다른 종에 대한

보호 의식, 미래 세대의 권리로서 환경권 존중, 생태 전환을 위한 사회체계의 변화 제안 및 실천 등이다.

②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를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시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하였다. 현행 교육목표에 진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수정·보완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육성하고 진로와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민주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 국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준(안) 개발을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주요 영역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이다. 내용 요소는 문화 다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등이다.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의 경우 현행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개선안은 내용 체계(안)를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며, 교과 재구조화를 통하여 기후환경과 공동체 소양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과학, 사회, 환경, 국어 등) 내용 재구조화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과목의 예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등이다.

셋째,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이다. AI·SW 등 신산업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 혁신과 연계하고 모든 교과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AI 등 신기술분야 기초 심화 학습 내실화

하는 것이다. 정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산업분야에 대한 학생 요구 등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별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 마련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교육 강화 방안은 초등학교의 경우 정보 관련 내용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편성 가능하며 실과 교과를 포함하여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한 34시간 이상 시수 확보를 권장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구조화는 정보 관련 교과(실과) 내용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술 분야 기초 개념·원리 등을 반영하고 놀이·체험 활동 중심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역량함양을 위한 과목을 신설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시간 및 교과(군)별 시수 증감을 통한 정보 시수 확대 이수 권장 기준 마련이다. 개선안은 정보 과목은 학교 자율시간을 확보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을 권장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구조화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관련 내용 강화와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과 연계한 기본·심화를 위한 정보 과목 개설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보 교과를 신설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이다. 현행 기술·가정 교과군을 개선안으로 기술·가정/정보로 변경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 내용 재구조화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항 제시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환경(일반 학교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마련이다. 학습 부진 학생, 느린 학습자, 장애가 있는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학교 및 초·중등 통합 운영학교 지원,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체제 지침을 마련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학교 교육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 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설과목으로 전문 공통 과목인 노동인권과 산업안전 보건, 교양 교과로 인간과 경제활동 등을 마련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

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 교육과정 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4년, 초등학교 3, 4학년은 2025년, 초등학교 5, 6학년은 2026년에 실시된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은 2025년 중학교 2학년은 2026년 중학교 3학년은 2027년에 실시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2025년, 고등학교 2학년은 2026년, 고등학교 3학년은 2027년에 적용 실시 된다[2].

IV.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1.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정도는 표 2와 같다.

표 2. 2022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

Table 2. Awareness of the 2022 Revision Curriculum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2(11%)	17(89%)	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명(11%),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17명(89%)으로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개정된 정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대에 맞게 개정 정도

Table 3. Degree of revision in line with the time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63%)	7(37%)	0	0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게 생각하다가 12명(63%), 그렇게 생각하다가 7명(37%)으로 대부분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학생, 교사, 학부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22 개정 교육과정 의미
 Table 4. Meaning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과목 선택의 자율성 보장하고 있음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교과의 공부뿐 아니라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을 강조 -전공 관련 선택교과목 이수를 통해 전공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측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함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강조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전공 교과 관련 심화 연수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선택교과를 개설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여야 함 ● 부정적 측면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무리수와 고통이 수반됨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의문 -변화된 사회에 따라 미래의 역군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을 위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측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제공됨 -자신의 학업뿐 아니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기 주도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폭넓은 어휘력을 바탕의 톨 깊게 읽을 수 있는 언어 소양을 길러주고, 수학 개념을 스스로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통해 수리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조력해야 함. -아이의 성향, 강점, 장단점, 교과과목 선호도를 파악하여 관련 책을 선택하고 독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 ● 부정적 측면 -잡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됨 -각 교과목에서의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교육과정의 변화는 어떤 부분의 변화인지 잘 모르겠음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보여주기식, 결만 번지르르한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됨. -교육의 핵심인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준비 없이 시달리게 되면, 과연 가르치는 내용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는 학생으로서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의미가 있었으며, 교사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필요한 준비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을 교육과 정적인 측면, 교사 측면, 기타 부분에서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22 개정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준비
 Table 5. Preparations at school sit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를 급하게 실행하지 말아야 함 -역량과 소양 개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논의와 협력체 체계 구축 및 디지털·AI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함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 선택과목 수업을 개설하며, 학점 이수 시 학업성취의 질을 관리해야 함 -단순히 나열된 교육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될 수 있게 다양한 연수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심화 연수 및 수업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수업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야 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함. 일부 선도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그곳에 서는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힘든 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교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표본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라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지향점을 교육활동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교수학습개발과 공유를 위한 교사 협의체 강화, 모든 교과가 연계 한 제 교육을 위한 연수참여 및 연구가 요구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인간상을 지향하는 교육활동이 운영되기에 입시제도는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 -수능이 강조되면서 수업이 다시 문제풀이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교육적인 퇴보가 걱정됨.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보여주기식, 결만 번지르르한 고교학점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됨. -교육의 핵심인 교사가 고교학점제에 준비 없이 시달리게 되면, 과연 가르치는 내용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 -선택과목 중심의 이동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함. -학교별로 환경이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2022 개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의 경우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준비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5. 2022 개정 교육과정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 결과 19명의 교사 중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
Table 6. Advantage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 전환교육, AI 소양 함양 교육에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소양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체적 가치 추구의 교육과정이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의 역군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그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함.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한 진로 연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함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의 개정과 취지에 공감함. 하지만 적용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대학 진학을 위한 선택과 본인의 관심을 위한 선택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진학을 위한 선택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진학에 도움을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인프라 차이로 지역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경제금융교육을 중시했으면 좋겠음. 국·영·수 교육은 강조하나,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고, 금융문맹이 너무도 많음.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교원의 수급 문제해결이 필요. 교사 스스로 전문성 신장은 당연한 과제이나 학생 수요에 맞는 기본 및 심화 선택과목 개설을 현재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음. 물론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선택과목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현장 교사에게 주어질 몫이 대부분일 것임. 또한, 다른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 결과 장점은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 전환교육, AI 소양 함양 교육에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여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다섯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식 정도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보았다.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에는 교육의 방향과 가치(교육철학), 학생들에게 무엇을(교육내용), 어떻게(교육방법) 가르칠 것인가 등이 담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가치, 교육내용, 교육 방법이 달라지며, 학생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미래인재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의 가치와 본질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는지,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전국적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대규모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의미가 크다.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정책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교육의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다. 여기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려와 이해, 존중 등 사회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성,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주도성이 담겨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 중 하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와 고교학점제 등이다.

2. 제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는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시도교육청이 선택과목 및 체험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교육기관 주체들이 자치성을 발휘하면 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방향도 가치 있는 것이다. 각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선택과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요소를 포함하여 교과 재구조화를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협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습득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량을 누적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의 역할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생님과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실행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중심에서 자신이 이해한 교육과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이론과 실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23].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과정이 교사가 아닌 교육 관련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교사들에게 전달되는 경우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 이론을 실제에 옮겨 교실에서 실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교실이라는 ‘장’에서 해석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24].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당연하게도 교사는 민주시민성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입시 위주와 경쟁 중심 학교 문화 안에서 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최하위권인 점을 생각할 때 입시교육 개선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절실한 요구만큼, 거시적인 교육 정책들, 대학 평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동반 추진하여서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 교육을 만들어야만 한다[24]. 그래야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주체로 세울 수 있다.

넷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면에서 대도시와 지역, 소규모학교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마다 장단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통해 나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국형 모델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고등학교에서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도적인 학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책임감, 소통, 포용, 협력, 생각하는 힘 등은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에 집중하게 하고, 재능이 있는 것을 육성하고 몰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자신이 생각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실현성을 높여줄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과 각론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게 하려면 교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계속성, 계열성이 잘 조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또한 교육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교과서에 2022 교육과정 개정 내용이 충실히 담기고, 교과서의 내용에서 글의 내용과 표현, 교육자료 등과 함께 교과서의 형식인 디자인, 편집 등에서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재미있게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는 교과서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국가 교육과정 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24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2027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처음으로 적용되는 2024년까지 앞으로 2년의 세월이 남아 있다. 이 기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이루며 만들어가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이 현실에 잘 접목되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H. Jeon, "A Study on the Future Education Direction of Universit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Purpose and Achievements of the Minerva School,"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 10, No. 5, p.23-58, 2021. <http://doi.org/10.30974/kaice> 2021, 10, 5, 2
- [2] E. C. Lee,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Difficulty in Recognized Curriculum Task on the Mediator Model of Interesting and Learning Motivation on Flow in Distant PBL Classes of Pre-service Teach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1, No. 2 p.594-603,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2.395>
- [3] H. J. Yoon, & J. W. Jo, "Analysis of changes and patterns of middle school information curriculum: from the 6th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eacher Education*, Vol. 37, No. 1, p. 245-264, 2021. <https://doi.org/10.14333/KJTE.2020.37.1.12>
- [4] J. H. Ahn, & S. A. Bae, "Review of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Changes in University Admissions Syste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1, No. 3, p. 95-120, 201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64513>
- [5] Ministry of Education, Future training course promotion plan. Sejong: Korea. 2021-04. p. 1-31. 2021.
- [6]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ion Curriculum Summary Main Points (Plan). Sejong: Korea, 2021.11.24. p. 1-47. 2021.
- [7] K. H. Hwang,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School Education Quali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8, No. 2, p. 23-58, 201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64510>
- [8] S. Y. Kim, "Exploring aspects enacted by elementary school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olicy,"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5, No. 4, p. 123-154, 2021. DOI : 10.35304/JCI.15.4.06
- [9] J. H. Bae,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2015 Korean National Curriculum, Integrated Subjects,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9, No. 2, p. 155-177, 201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38230>
- [10] J. D. On,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elementary integrated subjects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1, No. 2, p. 101-121, 2013.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47381>
- [11] S. Y. Yoo, & K. S. Ju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2015 Revised Integrated Subjects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5, No. 4, p. 23-45, 2021. <http://doi.org/10.35304/JCI.15.4.02>
- [12] W. P. Hong,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High School Curriculum and Necessary Policy Suppor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4, No. 2, p. 69-94, 2016.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52136>
- [13] Y. G. Hong, "Differences in learning results due to content system and identity of 2015 revised the integrated subjects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5, No. 4, p. 23-45, 2020. <http://doi.org/10.35304/JCI.14.3.01>
- [14] Y. S. Kwak, & Y. J. Shin, "Exploring Ways to Improve Integrated Science and Science Laboratory Experiments in Preparation fo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45, No. 2, p. 143-155, 2021.
- [15] J. H. Park & J. H. Kim,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Vol. 50, No. 3, p. 57-77, 2021. <https://doi.org/10.30775/KMES.50.3.57>
- [16] Y. K. Sung,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role of curriculum theory,"

-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39, No. 2, p. 1-3, 2021.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1409>
- [17]Y. J. Jeon, J. M. Kim, & H. I. Kim, "A Proposal of Subjects Composition and Content Knowledge System of Informatics fo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4, No. 6, p. 1-15, 2021. <https://doi.org/10.32431/kace.2021.24.6.001>
- [18]M. Lynn, "Determination and quant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Nursing Research*, Vol. 35, p. 382-385, 1986. <http://www.riss.kr/link?id=O104549375>
- [19]D. F. Polit, C. T. Beck, & S. V. Owen, "Is the CVI an acceptable indicator of content validity? Appraisal and recommendation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30, No. 4, p. 459-467, 2007. http://www.ebsco.co.kr/linksource/kookmin_ls.bmp
- [20]Y. J. Park & Y. H. Woo, "Content Analysi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Korea: A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28, No. 2, p. 263-287, 2012.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398613>
- [21]A. F. Hayes, & K. Krippendorff, "Answering the call for a standard reliability measure for coding data,"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Vol. 1, No. 1, p. 77-89, 2007. DOI 10.1080/19312450709336664
- [22]Choi, E. S., Park, N, J.(2022). Application Methods and Development Assessment Tools for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ased on Hyper Blended Practical Model.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2), 117-129.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117>
- [23]Ahn, S. K., Kwak, O. K., Jeon, B. G., (2021). STEAM Educa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Cognitive Development of Students in order to Cultivate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4), 527-535.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27>
- [24]K. J. Lee, "A Case Study on Teacher's Understanding of Curriculum Affecting on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 Evaluation*, Vol. 9, No. 2, p. 1-27, 20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62991>